



치킨 포장용기 제조기계 수입희망
사우디 최대 치킨가공업체

일일 40만마리의 치킨을 가공·판매하고 있고, 사우디 주요 도시에 대형 그릴치킨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 최대의 치킨 가공업체인 Fakieh Poultry Farms사가 치킨 포장용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제다공단 2,800㎡의 부지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에 소요되는 약 300t Form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Thermoformer와 시간당 75kg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Extruder를 한국에서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소요기계 : Complete Extrusion and Therforming Line for the production of the EPS packages including Electrical control-Forming Halloff-winding-Dosing-Granulator

■ 연락처

○ Fakieh Poultry Farms
P.O. Box 14220 jeddah 21424, 8th Floor, JCCI Bldg. Saudi Arabia
Tel : (996) 2 - 6518344
Fax : (996) 2 - 6510211
Contact : Mr. Waled Aahoor(Asst,



폴리스티렌 포장용품 일관생산라인

그리스사, 한국 공급업체 모색

그리스의 식품·농산품 산업 발달에 편승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포장용기의 공급을 위해 그리스 아테네 소재 Pharmaplast SA에서는 Expanded Polystyrene으로 아이스크림 컵, 패스트 후드용 그릇, 햄버거용 박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 일체 2개 라인을 구입코자 한다.

이 업체는 이 설비를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구입코자 했으나 아래 1번 설비만 구입하는데도 45만달러 이상이 돼 현재 보류중에 있다.

Pharmaplast SA는 지난 62년에 설립돼 의약품, 화장품, 식품용 플라스틱병과 박스를 생산해 주로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매출은 95년도에 215만달러, 종업원수는 35명의 그리스 중견기업의 하나이다.

■ 구입설비 명세

1. 깊이 3cm 미만의 EPS 용기를 생산하는 설비

- 생산품 용도 : 햄버거 용기, 패스트후드 접시, 일회용 접시, 인스턴트식품 용기 등

1) Expanded polystyrene making equipment
원재료인 폴리스티렌으로 Expanded polystyrene(EPS)를 만드는 설비

2) Vacuume forming machine

EPS로 생산코자 하는 용기의 형태를 만드는 기계

3) Hydraulic cutting machine

EPS로 성형된 용기를 개개체로 절단 하는기계

LDPE·PVC수지 구매계획

레바논 업체 6월 5~12일 상담위해 방한

레바논의 유력 플라스틱 원료 및 기계 전문 수입업체인 Kumaro Sarl사의 Samir Andary 사장은 오는 6월 5일 부터 12일까지 구매상담차 방한에 앞서 플라스틱 원료인 LDPE와 PVC수지 수출업체로부터 오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우디의 Sabic사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해 왔으나 최근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 수입선을 전환할 계획이다.

구매희망 품목과 수량 및 희망수입 가격은 다음과 같다.

MFI	Consumption per month	Price C & F Beirut
▶ LDPE(FILM) (HS Code :3902.10.0000)		
4	200MT	US\$890/MT
2	75 MT	US\$890/MT
0.7	25 MT	US\$890/MT
0.8	50MT	US\$890/MT
▶ LDPE(injection)		
22	25 MT	US\$890/MT
7	25 MT	US\$890/MT
▶ LDPE(2917.32.0000)		
K-value 56-58	300 MT	US\$830/MT
for mineral water		

한편 플라스틱 원료외에 6월초 방한시 시계 수출업체와도 상담을 희망하고 있는데 취급하고 있는 기계는 다음과 같으며, 관심업체는



KOTRA 베이루트 스포크로 카탈로그 등 상담 자료를 송부할 경우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거래 알선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Bag making machine for LDPE & HDPE

○ Blown film machine for LDPE, PP, LLDPE, HDPE

○ Vacuum foaming machine for food packaging

○ Injection blow molding machine for PET water bottles

○ Material feeders, hopper dryer, dosing units for plastic raw material

○ Impulse sealers(Manual)

■ 연락처

○ Kumaro Sarl

P.O. Box 14-5126 Beirut, Lebanon

Tel : (961-1) 811115, 603532

Fax : (001-212) 478-2874, (961-1) 603532

E-Mail : kumaro @ inco. com, lb

Contact : Mr. Samir Andary

**경기침체속 소비재산업 약진
EU, 제조업 경쟁력 상승**

EU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88년 이후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은 개선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소비재산업에서 더욱 뚜렷해 차, 다이어트식품류의 음료산업, 소비

재 가전제품, 의약품분야에서 특히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ngemann공업담당 집행위원 주도에 EU 집행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97년 유럽산업 현황 보고서' 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거 88~95년 동안 세계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에서 25%로 늘어났으나 서구의 경우 이보다 높은 32%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현재 EU 15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 서비스는 51%, 정부서비스가 14%, 농업 2%, 에너지 5%, 건설업이 6%를 차지했다. 제조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음식료부문으로 GDP 대비 3%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기(2.2%), 기계(2.1%)의 순을 보였다.

**올 세계경제 44% 성장
IMF 전망 88년 이후 최대성장을 될듯**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 88년 이후 최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23일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세계경제가 경제순환상이 상승국면에 있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으며, 각국정부는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지출을 자제하고 환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전제, 작년에 4.0% 성장한 세계경제가 금년과 내년 모두 4.4%의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어두운 면으로는 유럽의



고실업과 최근 침체된 유럽의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전체가 2.6%(작년 2.2%) 증가하고, 미국이 3.0%(2.4%), 독일이 2.3%(1.4%), 일본이 2.2%(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도국 전체가 6.6%(6.5%) 성장하고, 구 공산권지역은 3.0%(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플레이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최근 단행한 금리인상 조치를 또 한번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달러高 - 엔低에 대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순환상 점차 양경제간 격차가 해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환율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리없는 통화정책과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재정정책은 현수준을 지속시켜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단기금리를 상당히 인하시켰으나 아직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영국경제는 계속 5년간 상승국면에 있는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압력에 조심해야 하고 통화긴축정책을 미리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재 영국 파운드 가치의 상승이 인플레이 압력을 억제하고 있고 이는 당분간 인플레이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비아 국영회사, P.P Bag긴금입찰
1,100만장 규모, 5회 분할선적가능

The General National Co. for Flour Mills & Fooder는 연간 2회 P.P Bag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구매규모는 1,100만장이며 내용은 표와 같다.

프린팅 및 로고 처리와 관련된 샘플은 낙찰이 될 경우 수입업자에 의해 제공되며, 포장은 1천장의 백을 다발로 해 보호재를 삽입한 후 100개씩 처리하면 된다.

선적은 5회에 걸쳐 분할선적할 수 있으며, 1회 선적은 L/C가 개설되기 이전에 실어야 하고 수량은 10%이다. 2회째 선적은 L/C 개설 후 2개월 이내 이며, 이후 3회는 매월 선적하는 조건으로 L/C개설 후 5개월 이내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

가격조건은 Swiss Francs C & F Tripoli이며, 공급업자는 4월 24일 이전에 가격 및 샘플을 국영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오피의 유효기간은 97년 7월 31일이다.

기타 국제기준에 의해 선적전 상품검사를 하며, 검사요원은 수입업자에 의해 파견되고 검사의 관련된 경비 계약금의 0.8%는 공급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품 목	규 격	수 량	사 양
P.P Bag	70 X 100Cm	800만장	180g(±5g), 14/15 in warf & weft per inch Beige 혹은 Yellow 컬러 u.v stabilization
P.P Bag	70 X 100Cm	800만장	192g(±5g), 12/12 in warf & weft per inch, 기타 사양은 上同

(Tripoli 스포크) 리비아의 국영 제분공장인

또한 계약금의 1.5배는 리비아 국내 제세와



은행수수료로 이도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입찰에 관심이 있는 국내업체는 정식 오퍼 및 샘플을 KOTRA 트리폴리 스포크에 제공해야 하며, 입찰 마감 일자가 촉박함을 감안해 DHL로 발송해야 한다.

특히 리비아는 국영기업의 입찰에 의한 대량 구매가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찰조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PP쇼핑백 月 10만장 공급업체
터키 SH사, PPPE 비료포대 200만 장도

터키 수입상이 러시아수출용 PP 쇼핑백을 월 10만장씩 공급할 적격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러시아 등 CIS와 제 3국간 무역전문업체 SHT사가 수입할 쇼핑백은 60×90×130 cm 크기로, PP Woven원단에 PE 코팅제품이다.

중량은 m²당 90g 이상이며, 손잡이 끈을 부착하고, 간단한 프린트가 추가된다.

SHT사 Ziya Sahinkaya사장은 쇼핑백을 모스크바에 있는 거래선에 직접 납품해야 하는 관계로 FOB&CIF Moscow로 견적을 내주기 바라고 있다.

SHT사는 또한 비료 포대용 LDPE Valve백 100만장과 PP Valve백 100만장을 각각 수입하고자 한다.

이들 비료포장대는 84×50×13 cm의 박스형이다. LDPE 포대는 200μ 두께로 투명하거나 백색이어야 하며, PP 포대는 백색으로 안쪽을 20~30μ 두께로 코팅해야 한다.

이들 비료포대도 제 3국수출용으로 FOB&CIF Klaipeda(리투아니아)로 견적을 바라고 있다.

■ 연락처

○ SHT Ltd.

PK-99, Samsun 55001, Turkey

Tel : 90-362-431-1648, 432-7658

Fax : 90-362-432-8897

Contact : Mr. Ziya Sahinkaya

베트남 기계류·의약품 수출전망 밝다
춘계 베트남 국전에 국내 38개사 참가, 380만불 현장 계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동안 개최된 춘계 베트남 국제박람회에 우리나라는 한국 유니티드제약, 유일정밀 등 38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3,420만달러의 수출상담과 38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려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박람회는 베트남 최대의 국제박람회로서 금년도에는 한국을 비롯, 태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205개사와 현지업체 221개사가 참가했다.

한국은 의약품, 각종 기계류, 건축자재, 도정기, 정수기, 인삼제품, 직물류 등을 전시 출품했다.

베트남은 산업발전초기단계로 각종 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요가 크고 기존 대형 공장도 시설이 노후화돼 시설개체가 시급한 상황으로 국



산 산업용 기계류 및 플랜트 수출 전망이 매우 밝은 시장이다.

이번 참가업체중 캔 제조기계를 선보인 Y사 Auto Pion Winder 등 연사기계를 출품한 P사,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및 골재분쇄기를 선보인 S사 등이 현지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현장계약과 1천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상담을 벌여 대만과 일본산 기계류 위주인 현지시장 진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지 기계류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저급품은 대만산과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고급품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산 기계의 경우 대만산보다 2배가량 고가이나 품질이 월등하고, 선진국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H사, G사 등이 출품한 의약품과 인삼 제품도 지속적인 현지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각각 100만달러, 40만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는데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프랑스 등 유럽산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수입된 저급품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2~3년전부터 한국산 의약품의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어 향후 수출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면 서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 약품 이외도 병원용 약품 수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내 의약품 수출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후에라야 유통이 가능하고 등록 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삼근은 중국산 및 북한산이 수입되고 있으나 인삼가공제품은 한국산이 최대 시장점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약 150만달러에 이르고 있고, 인삼근이 함유된 드링크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외환부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고 더욱이 대금결제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시장상황임에도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이같은 계약, 상담실적을 올린 것은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폴리스티렌 식품용기
환경에 유해 사용금지**

중국은 생물 분해가 되지 않는 1회용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대신 20일내에 분해되는 목재펄프 용기를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환경보호국(NEPA)왕 유칭 부국장의 말을 인용, '환경에 유해한 식품용기를 단기간내에 생물 분해되는 식품 용기로 전국적으로 바꿀 예정' 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80년대 이후 식품이 1회용 흰색 폴리스티렌 용기에 담겨 판매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이들 용기 수십억개가 받아내 거리 철도 등에 버려져 소위 '흰색 오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폴리스티렌 용기는 식품 판매업자들이나 소



비자 모두에게 편리하지만 분해되는데 2백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국장은 전국에 걸쳐 버려진 식품 용기의 수가 94년말까지 30억개에 이르며 도시 지역에서 매년 배출되는 쓰레기 1억2천만톤 중 식품 용기가 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업체, PET 한국서 구매키로
자국수요 90%이상 공급하는 유력사**

칠레의 Mislej Hermanos Ltda.는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s(Hs Code:392062, 약어로 PET 로 표시하며, Blister Pack이라고도 함)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칠레 내에서는 유일한 PET수입상으로 국내 수요의 9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Mislej 사장은 미국, 독일 등의 제품 가격은 kg당 1.80달러 수준으로 품질은 우수한 반면 비싸고 중국제품은 kg당 1.20달러로 가격은 싸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첫수입은 약 100t, 도착항은 Valparaiso 또는 San Antonio, 거래방식은 L/C이다.

**중국세관, 신문용지 수입관세율 인상
자국제조업체 보호차원**

중국세관은 4월 1일부터 9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 신문용지(HS Code : 48010000)

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문용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누적 해소와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96년10월 15일부로 잠정 관세율을 5%에서 15%로 인상한 바 있으며 다시 5%를 추가 인상했다.

현지 수입업체에 따르면 중국은 95년에 신문용지 부족으로 신문사의 정상조업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95년8월 이래 신문용지의 대외수출을 중지하고 수입품에 대해 잠정 관세율을 5%로 인하함으로써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싱가포르, 붉은색상 광택 포장지 선호
다품종소량주문에 CIF가격표 제시해야**

연간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해 쇼핑을 즐기고 있는 싱가포르의 포장지 수요는 연평균 10~15%규모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상에 의하면 포장지 내수시장규모는 95년 40만달러, 96년 50만달러로 추정되며 97년에는 6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수입에 의한 재수출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수출규모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정확한 통계수치를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수입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수입업체에 의하면 수입규모는 연간 70만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서 추정되며, 수입국가 중 말레이시아에서 40만달러, 한국 및 대만에



서 각각 10만달러, 홍콩, 일본 등 기타국가에서 10만달러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한국산 포장지는 PVC 및 알루미늄이 함께 접착된 은색 포장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만산 포장지는 중국 전통무늬 및 색상(붉은 계통)으로 포장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포장지는 수요가 높은 시기로는 11월말(크리스마스)~2월(구정)기간이고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붉은 계통으로서 광택있고 값비싼 포장지를 구매하는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미국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 것이 선호되고 있으며 바이어가 수입시 특정디자인을 수출업체에 요구하기 보다는 수출업체가 제시하는 샘플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장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규모 문구류 수입상들이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결정 요인으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지 평균 판매가격은 1장당 0.35달러이며 값싼 말레이시아 제품의 경우에는 1장당 0.2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싱가포르 수입업체들이 선호하는 가격조건은 CIF 가격으로서 가격제공시 CIF 가격표를 제시해야 바이어가 쉽게 비교해 수입을 결정할 수 있다.

수입업체들이 소규모형태이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대량으로 구입하기보다는 다품종·소량으로 수입경향이 높아 이에 대한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상으로 하여금 빠른시일내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제시시 수출가능한 샘플 북이나 카탈로그를 함께 송부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美社, 한국 적격업체 급히찾아
컨테이너백 제조공장 이란에 건립 위해**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고 있는 Azad International사는 컨테이너 백 제조공장을 이란에 설립하고자 한국의 적격업체를 긴급 물색하고 있다.

Mohmood Taherian사장은 KOTRA 휴스턴스포크를 방문해 이 프로젝트는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의 장인이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미 이란 정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가격조건 등만 맞으면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업체는 KOTRA 휴스턴스포크를 접촉하면 된다.

(전 화 : 1-713-935-0554

팩 스 : 1-713-935-0613)

- 제조공장 규모 : 밀가루 3~5t 처리/일
- 컨테이너 백 재질 : Polypropylen(PP)
- 제품크기 : 길이 50~70cm

**항수·로선 소형 유리병 구매원해
코트리부아르 업체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모색**

코트리부아르의 머리염색 원료수입업체 Trans Inter Plus사는 한국으로부터 항수 및 로선을 담을 수 있는 소형 유리병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Tossinou사장은 인근 가나, 토고 등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서부아프리카를 커버하고 있는 활동적인 기업인이다.

아프리카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특유의 향수 사용을 즐겨하는데, 향수 등 원액을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수입, 현지에서 유리용기에 주입해 판매하고 있으나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유리용기가 고가이어서 한국으로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 사양

- 향수 또는 면도후 로션 등을 담을 수 있는 유리병으로 3.5ml, 4ml, 10ml, 15ml, 25ml, 40ml, 50ml용량

- 테스트 오더로 1컨테이너 수입희망

-CNF Abidjan P/I 및 관련 카탈로그 송부요망

터기업체, 18.9병 제조설비 급구
시간당 90개 생산 가능한 직압식 증공성형기

터키 유력 생수업체인 Baspinar사가 18.9병 제조설비를 터키방식으로 공급할 한국업체를 급히 구하고 있다.

이 회사가 도입하려는 설비는 식수를 가정에 배달하고,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18.9리터 식수병 생산설비이다.

설비는 직압식 증공성형기 설비로 시간당 90개정도 생산가능한 규모로 우선 추진중이며, 향후 2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대만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상태로서, 미국산은 대만제품보다 2

만달러이상 고가여서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대만과는 상담이 진행중이나 유사한 가격수준이라면 한국산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4월 3~6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플라스틱·포장기계전시회에 KOTRA 이스탄불무역관이 운영한 한국기계홍보관을 방문, 수집한 한국업체 카탈로그 검토과정에서 이 분야의 한국산 공급업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담당 부장인 카디르씨는 한국업체와 가격절충이 되면, 곧 바로 한국내 공장을 방문 조사후 즉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제조용 Pre-Form 공급가능 업체, 업소용(3리터, 8.5리터) 유리병설비 공급업체도 물색중이다.

■ 연락처

○ Baspinar Kaynak Suyu Sanayii Ve Ticaret Limited Sirketi

Kemberburgaz Gokturkkoyu, Istanbul, Turkeyak, Istanbul, Turkey

Tel : 90-212-239-7335(Fax 겸용)

Fax : 90-212-239-7075

Contact : Mr. Kadir/Director

PET병 제조설비 및 원료수입 추진
터키Orucoglu Yag Sanayii사

터키 유력 해바라기기를 생산업체인 Orucoglu Yag Sanayii사가 PET병 성형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 투자개발실 화학엔지니어인 Duygu Kiskanc씨가 KOTRA 이스탄불무역관에 요청



중인 PET병 제조설비는 시간당 11 식용유병 2천개, 2리 식용유병 1천개를 생산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두이구씨는 그레놀 타입 또는 Preform타입의 PET병을 공급가능한 한국업체도 물색중이다.

관심업체는 아래 연락처나 KOTRA 이스탄불무역관(팩스 :90-212-249-7106)으로 연락하면 된다.

■ 수입업체 연락처

○ Orucoglu Yag Sanayii A.S

Chemical Engineer, Investment-Development Center Istasyon Civari, 03030

Afyon, Turkey

Tel : 90-272-211 1133

Fax : 90-272-221 1132

Contact : Mr. Duygu Kiskanc

■ 품목 및 사양

품목 : Plastic Injection Mould

Type : For Producing Battery Case

H.S Code : 848041

■ 연락처

Wuhan Chang Guang Battery Co., Ltd

Tel : 86-27-4891924

Fax : 86-27-4891320

Contact : Mr. Chen

■ Wuhan 스포크

梁章錫 관장

Tel : 86-27-363-4015

Fax : 86-27-363-4016

아일랜드 Thorn사 포장재생산 플랜트 수입 추진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용 기계류까지 일괄 수입

중국 武漢長光電源有限公司
Plastic Injection Mould 對韓 수입희망

중국 武漢長光電源有限公司는 미국 및 캐나다에 연간 200~300만개의 축전지를 수출하는 회사로 대만으로부터 축전지 외피(ABS제)를 수입했으나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으로 최근 자체적으로 축전지 외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축전지 외피 몰드의 한국공급업체를 찾고 있으니 관심있는 업체는 수출용 몰드를 사용해 만든 샘플(외피)를 제작해 수입업체에 송부, 접촉하면 된다.

아일랜드의 Thorn Packaging Ltd. 는 재생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사용해 쓰레기 수거용 포장봉지를 생산하는 사출기계 및 완제품의 포장기계등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 및 포장기계류까지의 일괄 플랜트를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쓰레기 수거용 포장봉지 완제품을 이탈리아 및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가격 및 품질조건이 맞지 않아 직접 생산에 나설 계획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